



K
F
A
리
그

‘2년 연속 정규리그 1위’ 포천 인창수 감독 “‘**닥공**’이 아닌 ‘**효공**’, 우리가 독보적인 이유”

이수식 감독이 다져 놓은 토양에 꽃을 피운 인창수 감독
공격의 화끈함은 덜하지만 효과적인 ‘빌드업’ 축구로 1위 달성
“자만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 챔피언전 대비할 것”

최강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2년 연속 정규리그 1위에 오른 포천시민축구단의 이야기다. 포천의 2013년은 독보적이었다. 25경기에서 단 1패, 2라운드부터 12연승을 내달리는 등 정규리그 1위를 향한 여정은 여유로울 정도였다.

여기에는 인창수 감독의 역할이 컸다. 그는 챌린저스리그 사상 첫 2년 연속 정규리그 1위를 달성하며 ‘포천 독주’의 시대를 알렸다. 지난 2월 갑작스럽게 별세한 **故 이수식 감독**이 다져 놓은 토양에 열매를 맺었다.

“올해 2월 14일부터 포천을 맡았습니다. 동계훈련 없이 팀을 맡아서 걱정이 많았어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시즌 초반에 전반전이 끝나면 일부러 세 명씩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감독 자리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죠. 그러나 **故 이수식 감독**

님께서 좋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한 상태였기에 저는 전술적인 부분만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팀을 만들어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인창수 감독의 포천은 달랐다. **故 이수식 감독**이 챌린저스리그판 ‘닥공(닥치고 공격)’을 추구했다면 인창수 감독은 ‘효공(효율적인 공격)’을 선보였다. 공격의 화끈함은 덜했지만 수비라인부터 만들어가는 빌드업(Build-up)이 더욱 정교해졌다.

“최근 몇 년간 유행하는 게 ‘닥공’이잖아요. 우리는 ‘효공’을 하자고 선수들에게 주문했어요. 닥공은 두 골을 실점해도 세 골을 득점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두 골을 실점하지 않고 세 골을 득점하자고 말하거든요. 효율적이며 강한 축구가 새로운 포천입니다.”

인창수 감독은 팀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한

첫 해였다고 평가받는다. 포천의 지난해 우승 멤버가 그대로 남은 가운데 심영성과 이상돈(전 강원), 안성남(전 광주), 김준태(전 창원시청) 등 프로와 실업에서 맹활약했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우려를 받았던 조직력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저는 오히려 선수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영입된 선수 중 베테랑이 많아서 자신들이 팀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공통된 목표를 심어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한 달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선수단의 자신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정신적인 부분에서 잘 준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리그에서 무패로 1위, FA컵 16강 진출까지 이뤄내고 싶습니다.” / 김동현 기자



포천 인창수 감독은 팀의 새로운 배움을 이야기했다 / 서혜민 기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진 승부의 연속 서울공고, 사상 첫 왕중왕전 진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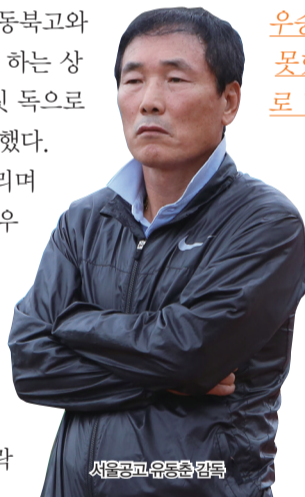
대신고와 마지막 라운드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 이어가... 유동춘 감독 “자신감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



서울공고(위)가 동북고(좌)를 3-0으로 꺾고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했다

지난 14일 열린 '2013 대교눈높이 고등학교' 서울 남부 권역 마지막 라운드. 서울공고는 대신고와 승점 24점(7승 3무 5패)으로 동물을 이겼지만 골 득실에 4점 앞선 불안한 3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공고는 동북고와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승리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이 자칫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다.

서울공고는 전반 1분만에 첫 골을 터뜨리며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어 14분 뒤에는 백민우가 한 골을 추가해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어 한 골을 더 추가한 서울공고는 최종 스코어 3-0으로 승리를 확정, 사상 첫 왕중왕전 진출이라는 감격을 누렸다. 같은 날 대신고 역시 가락고를 3-0으로 꺾었으나 서울공고에 승자승원칙(1무 1패)에 밀려 탈락



서울공고 유동춘 감독

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 지은 후 서울공고 유동춘 감독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선수들 덕분입니다. 고등학교에 참가하고 왕중왕전에 오를 건 처음이예요.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 선수들은 물론 학교, 학부모님들의 축구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 감독에게 무엇보다 큰 기쁨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고등학교 휴식기에 참가한 서울특별시장기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서울공고는 후반 리그에서 고공행진을 질주했다. 권역 1위 언남고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은 것. 이러한 활약에 학교측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축구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봐요. 가장 기쁜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매우 놀랐어요. 서울대회에서 우승하고 왕중왕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해서 꾸준한 팀으로 만들어야죠.”

유 감독은 왕중왕전 진출만으로도 기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이제 막 자신들의 축구를 선보이기 시작한 선수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들의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다.

“왕중왕전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기분 좋습니다. 특별한 목표는 없어요. 오르면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사진 송창우 기자

서울공고 주장 유희제, “처음이자 마지막 왕중왕전, 물러섬은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올해 서울공고에게 매우 적합한 말인 듯하다. 한가위를 앞둔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공고는 동북고를 3-0으로 제압하고 사상 첫 왕중왕전 진출에 성공했다. 서울공고에게는 최고의 추석 선물이 된 셈. 주장 유희제는 덤덤한 표정으로 왕중왕전 진출에 대한 느낌을 밝혔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 어준 덕분입니다.”

지난 2011, 2012년 팀이 8위, 6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아만 했던 유희제. 그는 올 시즌 팀의 가파른 상승세를 예감한 듯했다. 올해 들어 선수들이 축구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올해 들어 팀 스타일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자유분방한 편이었지만 요즘은 축구에 대해 더욱 진지해졌어요. 눈빛도 많이 달라졌고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유희제를 비롯한 3학년 선수들에게 남은 것은 왕중왕전뿐이다. 유희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왕중왕전 앞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전국의 강팀들과 함께 당당히 어깨를 견주어 보겠다는 각오다.

“어떠한 성적을 목표로하기보다는 처음 올라간 만큼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할 생각이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 글·사진 송창우 기자



서울공고 주장 유희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근성 있는 팀 청평고



전체 인원이 14명이 불과한 청평고

11명이 넘는 축구 경기에 10명의 선수들이 나서 투혼을 발휘했다. 청평고는 지난 7일, 구리고등학교에서 열린 '2013 대교눈높이 고등학교' 구리고전에서 10명으로 90분을 싸웠다.



청평고 정종관 감독

한 선수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한 명이 부족한 만큼 더 부지런히 뛰어야 했다. 후반전에는 그 여파로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그러나 10명의 선수들은 경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먼저 선제골을 내줬지만, 기어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결국 무승부를 거두었다.

“청평고의 축구부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교체 선수가 3명인데 그중에 골키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경기에 교체로 뛸 수 있는 인원은 2명밖에 없죠.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가 적은 상황에서 경고를 누적까지 겹치다 보니 10명으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경기였을 텐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청평고 정종관 감독

청평고의 악비단 근성은 이번처럼 대단했다. 권역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았다. 한 점 차로 패배한 경기들이 꽤 많았고, 특히 1위 팀 청은고와의 1차전에서는 난타전 끝에 5-3으로 패배했다.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뛰죠.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우리 팀 선수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독한 근성이 곧 청평고예요.” 주장 박진우

이번만 아니다. 선수들은 강한 근성만큼이나 희생정신도 강하게 갖추고 있다. 10명으로 뛰던 당시 팀의 주전 골키퍼 오지훈은 골문을 떠나 필드플레이어로 활약했고, 1학년 김은빈이 대신 골문을 지켰다.

“(오)지훈이는 팀을 위해서 낯선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팀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매우 좋았어요. 제가 졸업하고 팀을 떠났을 때도 후배들이 그런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팀을 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김은빈

14일에 펼쳐진 청은고와의 대결에서도 두 골키퍼는 함께 출전했다. 한 명의 골키퍼는 또다시 필드플레이어로 경기를 치렀다. 이번에도 근성과 희생이 넘치는 경기였다. 아쉽게 또 한 점 차로 패배했지만 그래도 청평고는 1위 팀과 경쟁한 대결을 펼쳤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경기를 치르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강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축구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축구, 끈끈한 축구, 쉽게 지지 않는 축구를 앞으로도 계속 펼칠 것입니다.” 정종관 감독

/ 글 이태경 기자·사진 박성준 기자

이들간 치열했던 경남 권역, 순위 싸움의 결말은?

경남정보고, 김해생명과학고-보건고 연파... 사상 첫 권역 1위 확정! 권역 2위는 거제고, “연고지에서 열리는 왕중왕전, 좋은 성적 낼 것”



경남 권역 최후의 승자가 된 경남정보고(오른쪽) // 장일현 기자

경남 권역에 운명의 주말이 찾아왔다. 왕중왕전에 진출할 네 팀은 이미 가려졌다. 남은 것은 권역 1위 등 최종 순위였다. 14일, 15일 연속 두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네 팀의 순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었다.

유리한 쪽은 선두인 경남정보고였다. 승점은 37점, 그 뒤를 거제고(34점), 김해생명과학고(33점), 창원기계공고(33점)가 뒤쫓고 있었다.

14일 첫 경기에 나선 팀은 거제고였다. 상대는 하위권에 처져있는 창녕고. 전력 차이가 분명했다. 더군다나 상반기에 있었던 대결에서 거제고가 완승을 거둔바 있었다. 창녕고를 잡으면 승점에서 동물을 이루며 경남정보고를 압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난타전을 벌인 양 팀은 3-3 무승부를 거뒀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창원기계공고가 통영고를 잡으며 2위를 경쟁 뛰어들었다. 모든 관심은 경남정보고와 김해생명과학고의 승부에 쏠렸다. 김해생명과학고도 권역 우승의 가능성이 남아있었기에 전력을 다했다. 역시 치열했던 경기의 양상은 1골 승부로 이어졌

다. 결국 후반 종료 직전에 강윤기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경남정보고의 1위를 확정 짓는 골이었다.

“경기 막바지에 나온 골이라 짜릿했어요. 첫 권역 1위까지 달성했으니 정말 나

위 없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잘 했어도 매번 2~3위가 최고 기록이었어요. 소외감을 덜어낸 자리에 자신감을 채워 넣은 선수들이 대견합니다.” 경남정보고 최을두 감독

지난해 최하위, 올해는 왕중왕전 진출 본격적으로 닦 올린 ‘김희정 감독의 광명공고’



그야말로 날개를 잃은 듯 추락했다. 2010년까지 2년 연속 왕중왕전에 진출했던 광명공고는 2011년 6위, 그리고 지난해에는 단 2등을 거두며 권역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초지고-광문고-서해고에 이어 경기서부 권역 4위에 올랐다. 2위 광문고와의 승점 차는 단 1점. 특히 16경기에서 단 9골만 내준 수비력은 권역 최저 실점이었다. 덕분에 광명공고는 201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금 왕중왕전 무대를 밟게 됐다.

경기당 0.56에 불과한 실점률이 눈에 띄지만, 광

명공고는 공격적인 색채가 강하다. 김희정 감독은 선 굵은 축구는 지양하면서 패스와 개인기를 통해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가길 원했다. 마침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기와 볼 컨트롤을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팀에 많아졌다. 감독의 성향과 선수들의 스타일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광명공고는 마음껏 공격적인 축구를 펼쳤다.

“대신, 공격을 하다가 공을 빼앗기면 그 지점부터 수비가 시작이 됩니다. 강하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거죠.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전술에 맞게 공격적인 축구를 잘 펼친 것, 그리고 전방에서부터 시작된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 팀이 1년 만에 권역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명공고 김희정 감독

선수들과의 ‘신뢰감’도 빼놓을 수 없는 올 시즌 광명공고의 키워드 중 하나다. 김 감독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선수들이 기죽지 않기를 바랐다. 늘 자신감을 잃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라고 강조했다. 덕분에 선수들은 부담감을 떨쳐낸 채 경기를 즐겼다. 김 감독이 올 시즌 가장 잘 된 점으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점’을 꼽은 것도 선수들이 시즌 내내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덕분이다.

광명공고는 다가오는 왕중왕전 무대에서도 내심 ‘돌풍’을 노린다. 다만 올 시즌 주전 선수들이 베스트로 활약할 계획은 아니다. 오히려 2학년의 어린 선수들 일부가 출전 기회를 받을 전망이다. 일종의 발상의 전환인데, 이는 서서히 닦을 올리기 시작한 ‘김희정 감독의 광명공고의 출발을 일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은 2학년 선수들이 경기에 뛰면 그것이 곧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시기인 3학년 선수들에 비해, 2학년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그만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토대로 적어도 소년체전 출전권까지 노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글·사진 김명석 기자

2013 초중고리그 왕중왕전, 서산-횡성-거제에서!



‘2013 대교눈높이 초중고리그’ 왕중왕전 개최지와 대진추첨식 일정이 각각 확정됐다.

초등부와 중등부 왕중왕전은 각각 충남 서산시와 강원 횡성군에서 10월 19일부터 열린다. 고등부 왕중왕전은 2주 뒤인 11월 2일부터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대망의 결승전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왕중왕전 대진표를 가리는 대진 추첨식은 다음 달 7일과 8일에 걸쳐 이틀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에서 진행된다. 초등부는 7일 오전 10시, 중등부는 오후 2시부터 대진을 추첨하며, 고등부는 다음날인 8일 오후 2시부터 추첨을 진행한다. / 김명석 기자

집중력에서 갈린 충북, 충남 권역의 희비 ‘신평중-신명중 웃고, 운호중 울었다’

신평중 후반 38분 박일규 결승골, 대성중 잡고 권역 2위로 ‘왕중왕전 직행’ 집중력 흔들리던 운호중은 제천동중과 2-2 무승부… 신명중에 WC까지 내줘

‘최후에 웃은 자는 신평중과 신명중이었다. 왕중왕전 진출의 사활이 걸렸던 지난 14일,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충북, 충남 권역 최종전에서 신평중이 대성중에 2-1로 승리를 거두며 왕중왕전 진출에 성공했다. 신명중도 예산중을 대파하고 권역 3위에 올라 와일드카드를 통해 왕중왕전 무대를 밟게 됐다.

서로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라운드였다. 2위 안에 들어야 왕중왕전에 직행할 수 있기에 2위 신평중(승점 30점), 3위 운호중(29점), 4위 신명중(28점) 등 3개의 팀이 가슴 졸이는 최종전을 펼치게 되었다. 중요 경기에서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결국 ‘집중력’이었다.

가장 먼저 운명의 한 판을 펼친 팀은 신평중이었다. 예산중과 맞붙은 신평중은 경기를 주도하고도 예산중의 역습에 무너지면서 실점을 먼저 허용했다. 그러나 후반 4분 박종민의 골을 시작으로 송민규, 고동규, 노주현의 골까지 이어지며 결국 4-1로 완승을 거뒀다.

신명중의 승리로 운호중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승리’였다. 그러나 운호중은 경기 시작부터 수비가 불안했다. 집중력이 부족해 보였다. 결국 실점도 먼저 내렸다. 자책골이었다. 전반



신평중이 권역 2위로 왕중왕전 진출에 성공했다



신명중은 극적으로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3위 자리까지 내주게 된 운호중

28분, 제천동중의 크로스를 수비수 이호중이 건어내려 한 것이 오히려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전

반 37분에는 제천동중 김영민에게 추가골을 허용했다. 점점 왕중왕전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던 후반 11분, 상대 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에 놓인 운호중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반 24분 김근섭의 프리킥 만회골과 후반 31분 권구범의 중거리포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끝내 역전골은 터지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2-2로 종료됐다.

뒤이어 왕중왕전 경쟁 레이스의 마지막 주자 신평중이 나섰다. 신평중이 승점 31점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겨야 안전하게 왕중왕전에 오를 수 있었다. 신평중은 전반전에 철호의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치며 고전하는 듯했으나 곧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후반 3분, 박윤수가 문전에서 시원한 헤딩슛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대성중의 이민규에게 실점을 허용했지만, 후반 38분 박일규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2-1로 승리했다.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빛났던 신평중은 결국 2위 자리를 지켜냈고, 운호중은 경기 초반에 드러난 집중력 결여로 결국 왕중왕전 진출에 실패했다. 4위였던 신명중은 이날 승리로 3위에 오르면서 와일드카드로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글 이태경 기자·사진 박영석 기자

8개 팀, 와일드카드로 왕중왕전 진출 확정!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왕중왕전 진출 팀과 탈락 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총 10개 팀이 추가로 출전하게 되는 와일드카드 진출 팀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라운드를 통해 총 8개 팀이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대전과 경북B 권역의 2위 팀 중 상위 한 팀에게 주어지는 왕중왕전 티켓은 대전 권역 2위 팀에게 돌아갔다. 현재 대전 권역 2위인 대전 U-15팀(유성중)은 최종 라운드에서 패하더라도 경북B 권역의 2위 팀인 강구중에 승점 1점 앞서 왕중왕전 진출권을 확보했다.

대구와 강원 권역의 3위 팀 중 한 팀에게 주어지는 티켓도 주인공이 정해졌다. 강원 권역 3위 팀인 후평중은 남은 경기를 이기더라도 대구 권역 3위 팀인 대구북중의 승점을 넘어서지 못한다. 결국 대구 권역은 대륜중, 대구 U-15팀(울원중)에 이어 대구북중이 추가로 왕중왕전 무대를 밟게 됐다.

서울북부, 충북/충남 등 무려 7개 권역의 3위 팀들이 벌이

던 6장의 왕중왕전 진출권 경쟁도 막을 내렸다. 서울남부 권역의 한양중이 승점 27점으로 유일한 탈락 팀이 됐다. 대신 광희중, 경신중, 문래중, 신명중, 신현중, 광명중 등 6개 팀이 와일드카드로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기회를 누리게 됐다.

제주, 경북A, 경기동부 권역의 3위 팀 중 상위 한 팀에게 주어지는 티켓은 사실상 경기동부 권역의 3위 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제주 권역 2위 팀인 중앙중은 이미 탈락이 확정됐고, 경북A 권역의 오상중은 경기동부 권역 3위권 팀들이 모두 패하고 마지막 라운드를 이기더라도 무려 16골의 득실차를 뒤집어야 한다. 결국 용인레이번스 U-15와 대월중 등 경기동부 권역의 3위 팀이 한 장의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기북서 권역과 인천 권역의 4위 팀 중 한 팀에게 돌아가는 티켓 한 장의 주인공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두 권역 모두 최종적으로 누가 4위에 오를지조차 확정이 안된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결국 두 권역의 와일드카드 진출 팀은 최종 라운드까지 모두 끝나야 가려지게 됐다. /김영석 기자

경기장 이모저모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너희 뒤에서 항상 응원할 테니 멋진 선수로 도전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영원한 나의 제자들아.” - 너희들의 든든한 후원자 선생님.

지난 14일 재현중학교에서 발견한 현수막 문구입니다. 바로 도봉중 이성일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는데요 졸업을 앞둔 3학년 선수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감독님의 바람대로 꼭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할게요~! /이보미 기자

지난 14일, 제천축구센터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제천동중의 선수들이 첫 골이 터지자 전원이 벤치 앞으로 달려가 큰절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선수들의 큰절 세리머니에 벤치도, 관중석도 모두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골에 열광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즐거움에 열광한다” 신명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제작한 플래카드에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추구하는 순간을 즐기기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척 와닿았습니다. /이태경 기자

장흥중과 순천매산중의 경기가 열렸던 지난 14일 정남진리조트. 가을비가 내리던 경기장 한편에 장흥초 선수들을 태운 미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경기가 잘 보이는 곳에 버스가 멈추자 장흥초 선수들은 일제히 창문을 연 채 형태의 플레이를 지켜봤습니다. 바가 그자자 경기장 바로 앞에 쫓르르 앉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선배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던 장흥초 선수들. 쿿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배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에 여념이 없던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영석 기자

부활의 날개 편 복성중 4년 만에 왕중왕전 무대 밟는다

첫해 왕중왕전 출전 이후 2011년 8위까지 추락... 그러나 올해는 권역 2위 올라 양민호 감독 “단기전에 강한 정신력-빠른 스피드 앞세워 왕중왕전 돌풍 기대”



복성중이 권역 2위로 4년 만에 왕중왕전 진출에 성공했다

4년 만이다. 2009년 이후 날개를 잃은 듯 추락하던 복성중이 다시금 부활의 날개를 폈다. 13승 3무 2패,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며 전남, 광주 권역 2위. 전남 U-15팀을 추격하지는 못했지만 순천매산중을 2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즌이었다.

2009년만 하더라도 복성중은 전남, 광주 권역에서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듬해 5위로 밀려나더니, 2011년에는 10개 팀 중 8위로 추락했다. 전남 U-15팀(광양제철중)과 순천매산중이 2009년 이후부터 줄

곧 권역 최강팀의 입지를 다져가던 사이, 복성중은 서서히 잊혀진 채 다른 팀들의 가을잔치를 지켜보아야 했다.

“2009년, 1회 대회를 나간 이후로 오랜 만에 나가기 되었는데요, 왕중왕전 진출권을 다시 되찾아왔다고 봐야겠죠. 특별한 소감이 있기보다는 3학년 아이들의 마지막 경기니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하 양민호 감독

전력 상승의 비결로 양민호 감독은 ‘스피드를 첫 손에 꼽았다. 예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빠르른 자원들이 많아

스피드를 활용한 전술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 1위 전남 U-15팀에 패한 경기가 유일하게 두 골 이상의 점수 차로 내준 경기였을 만큼 이번 시즌은 전반적으로 탄탄한 전력을 자랑했다.

“올해는 빠른 아이들이 많았어요. 올 시즌 우리 팀의 코드를 ‘스피드’라고 봐도 무방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좋은 경기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도 놓치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골 결정력의 부족이 참 아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4년 만에 도전하게 된 왕중왕전 무대다. 2009년 첫 도전 당시에는 64강에서 부산 기장중에 0-1로 패하며 일찌감치 탈락했다. 그러나 올해는 자신이 있다. 권역 내 성적으로 거둔 선수들의 자신감과 단기전에 유독 강한 정신력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일을 낼 수 있다는 각오다.

“우리 선수들은 정신력이 좋아요. 토너먼트에서는 무엇보다 정신력이 중요하잖아요. 단판 승부에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선수들의 정신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3학년 선수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글·사진 김명석 기자



복성중 양민호 감독



석관중 임형남 감독

서울중부 권역의 왕중왕전 티켓은 ‘돌풍’을 일으킨 아현중과 재현중이 거머쥐었다. 이로써 3, 4위에 랭크된 석관중과 경희중은 아쉽게도 내년을 기약해야만 했다.

이미 두 차례씩 왕중왕전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두 팀이다. 특히 경희중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진출을 바라왔으나 결국 4위로 리그를 마감했다. 석관중 역시 2년 만에 왕중왕전에 나서는 듯했지만 리그 중반에 선두 자리를 내주며 3위에 머물고 말았다.

석관중 임형남 감독은 “올해 권역에서는 전력이 비슷한 팀들이 많았다.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흠뻑이진한 시즌을 보냈다”면서 “최근 몇 경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위였는데 두 게임 정도 놓치면서

아쉽게 탈락한 석관중-경희중 “내년에는 달라질 것!”

순위가 밀려났다. 아쉬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두 팀의 왕중왕전 진출을 축하하고 응원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석관중은 승점 4점 차로 왕중왕전 진출에 실패했다. 도봉중전 패배가 컸다. 상승세를 달리던 석관중이 불의의 일격을 맞으며 한풀 꺾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리그 마지막 경기인 경희중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임 감독은 “왕중왕전 진출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난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대가 더 크다. 2학년 아이들 3~4명 정도가 올해 큰 활약을 했다.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꼭 왕중왕전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희중 김은철 감독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경희중 김은철 감독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감독은 “처음에는 조 편성이 잘 된 것 같아 무난히 왕중왕전에 올라가리라 예상했다. 경희중에 부임한 지 3년째라 더 잘 해보겠다는 다짐으로 시적을 했는데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불어 김 감독은 “팀의 단결과 화합이 부족했던 것 같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팀 분위기를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단합이 되나 안 되나에 따라 성적이 결정될 테니까 말이다. 물론 선수 개개인의 기술 발전도 중요하다. 아꼈던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글·사진 이보미 기자

전남, 광주권역 마무리 전남 U-15팀 ‘3년 연속 1위’

전남, 광주 권역이 일정이 지난 14일 네 경기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전남 U-15팀(광양제철중)은 3년 연속 권역 1위에 성공했고, 남은 두 장의 왕중왕전 티켓은 복성중과 순천매산중이 가져갔다.

시즌 초 화두는 전남 U-15팀의 3연패 도전을 과연 순천매산중 등의 경쟁 팀들이 막을 수 있느냐 여부였다. 그러나 전남 U-15팀은 시즌 초반 5연승, 중반 8연승의 고공비행을 이어가며 권역 1위를 질주했다. 최종 성적은 15승 2무 1패로 전남, 광주 권역 최강팀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김태엽 전남 U-15팀 감독은 “시즌 초 목표 중 하나였던 권역 3연패의 꿈을 이뤘다. 이제 마지막 목표인 왕중왕전 우승에 도전하고 싶다”라며 우승 소감과 함께 왕중왕전에 대한 목표를 밝혔다.

2009년 이후 왕중왕전과 인연이 없던 복성중은 13승 3무 2패의 성적으로 오랜만에 왕중왕전 무대를 밟게 됐다. 2011년 8위까지 추락했던 복성중은 지난해 5위로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올해 전남 U-15팀, 순천매산중에 각각 1패씩만 내주며 권역 2위에 올라섰다.

순천매산중은 2위 자리를 복성중에 내줬지만 3위로 왕중왕전 진출에 성공, 5년 연속 왕중왕전 무대를 밟게 됐다.

한편 지난 시즌 3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했던 광주 U-15팀(광덕중)은 4위에 머무르며 왕중왕전 진출에 실패했고, 장흥중과 강진중, 해남중, 목포제일중, 광양중, 여수구봉중 등이 뒤를 이었다. /김명석 기자

부산동백 권역 최후의 승자는 상리초 “권역 1위-첫 왕중왕전 진출 성공!”

반드시 이겨야 했던 장산초전, 양현준 결승골로 1-0 승리... 권역 1위 확정! 승자승에서 밀려 1위 놓친 연산초, ‘그래도 내년을 더 기대하게 만든 시즌’



연산초 선수들이 축하하는 상리초 선수들 / 최현준 기자

지난 14일 당갑초에서 열린 '2013 대교 눈높이 초등학교 부산동백 권역의 최종전은 특별했다. 올 시즌 내내 선두 다툼을 벌였던 상리초와 장산초의 대결인 것도 흥미롭지만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두 팀은 선두인 상리초와 그와 승점이 동물이던 연산초다. 연산초가 앞선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잠시나마 권역 1위로 올라선 덕분에 상리초로서는 무조건 이겨야만 권역 우승과 함께 단 한 장의 왕중왕전 티켓을 차지할 수 있었다.

상리초의 필승 카드는 역시 우승중, 양현준 콤비였다. 올 시즌 상승세의 주역인 두 공격수가 넘지 못한 수비벽은 없었다. 게다가 추성현과 최준현으로 구성된 양 날개는 상리초의 공격력을 배가시켰다. 상리초의 공격진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매섭게 장산초를 쏘아붙였다.

그러나 장산초도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니다. 수비를 굳건히 하면서 날카로운 역습을 펼쳐 상리초가 마음 놓고 공격에만 전념할 수 없게 했다. 결국 전반전은 득점 없이 종료되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쪽은 상리초였다. 패배뿐 아니라 무승부도 용납되지 않기에 더욱 공격적으로 후반전에 임했다. 이는 분명 양날의 검이었다. 수비수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게 되면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 아슬아슬한 공방이 계속되던 와중에 드디어 상리초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추성현이 측면 돌파를 하면서 아크 에어리어 정면으로 패스를 연결했고, 양현준이 이어받아 상대 골키퍼의 빈 공간으로 정확히 차 넣었다. 견고하던 장산초의 수비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으니 역시 에이스다운 골이었다. 득점 직후 환호하던 상리초 선수들은 팀 벤치에 있는 윤광호 감독에게 달려들어 서로를 얼싸 안고 기뻐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2분 남짓. 이때부터 한 골을 지키려는 상리초와 뺏으려는 장산초의 숨 막히는 접전이 펼쳐졌다. 총공세에 나선 장산초는 여러 차례의 유효 슈팅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특히 경기 종료 직전의 프리킥 상황에서 상리초의 크로스바를 강타한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계속되는 위기일발의 상황을 육탄방어로 저지한 상리초, 결국 휘슬이 울리며 상리초의 1-0 승리가 확정되었고 그라운드에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상리초와 연산초는 승점에서 동물이 되었다지만 승자승(상리초가 2승 1패로 우세)에 의해서 상리초가 권역 우승팀이 되었다. 그리고 부산동백 권역 유일의 왕중왕전 진출권과 사실상 내년도 소년체전의 부산대표 자격을 확보했다.

연산초로서는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그러나 늘 상리초와 장산초의 그늘에 가려졌던 연산초의 선전은 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든다.

/윤개발 기자

용인 권역 1위 용인FC유소년 “왕중왕전 4강까지 오르겠다!”



용인FC유소년팀 감독 최정원

말 그대로 리그를 지배했다. 용인FC유소년이 경기용인 권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개막 후 12연승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혔던 용인FC유소년은 시즌 내내 선두자리를 지켜내며 일찌감치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했다.

용인FC유소년은 개인 능력과 조직력을 잘 조화시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4-2-1-3 포메이션이 기본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연습할 때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동하지만, 실전에서는 세부 전술을 하나하나 적용하기보다는 선수 스스로 판단해서 돌파하고 패스하도록 하는 편입니다. 개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이하 류희석 감독

2년 만에 왕중왕전에 다시 나가게 된 용인FC유소년은 현재 4강까지 바라보고 있다. 역대 왕중왕전에서 4강에 오른 클럽팀은 부산 U-12팀 단 한 팀뿐이다. 만약 용인FC유소년이 4강에 오른다면 초등학교에도 큰 사건이 될 것이다.

/글·사진 김단 기자

“리그 후반기에는 내년을 대비해 5학년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지만, 왕중왕전에서는 6학년 베스트11으로 전력을 다해 임해야죠. 왕중왕전 4강이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왕중왕전에서 활약할 용인FC유소년의 핵심 선수는 9번 정성원. 후반기에 정성원이 부상으로 빠지지 않았다면 용인FC유소년이 전승으로 우승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팀 내에서 그의 비중은 크다. 강력한 슈팅이 장점인 정성원은 왕중왕전 무대에서 용인FC유소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뷰 말미, 류희석 감독은 정성원을 비롯한 6학년 선수들의 경기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3, 4, 5학년들도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후배들이 이번 대회에서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도 주마리트를 거쳐 왕중왕전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사진 김단 기자

‘유종의 미’ 어정초 김재성 감독 “PLAY, STUDY, ENJOY 실현했죠”



어정초 감독 김재성 감독과 선수 김진우

어정초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활기차게 몸을 풀었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해도 왕중왕전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어정초는 좌항초를 2-0으로 누르고 올해 마지막 정규 경기에서 승리했다.

“아이들에게는 마지막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렇게 말했었어요. 전반전에서 골이 나온 다음에 후반전에 몸이 안 좋은 선수를 교체한 것이 승리의 이유인 것 같네요.” 어정초 김재성 감독

선수들은 올해 마지막 경기를 어떻게 느꼈을까? 어정초 주장 장건우에게 마지막 경기와 리그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동료들과 호흡이 잘 맞아서 좋았어요. 올해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어요. 수지초와 시즌 내내 2위 싸움을 한 덕분에 다른 팀들과 할 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기고 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수 모두가 마음을 맞춰 뛰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장 장건우

김재성 감독은 올해를 ‘공부하는 축구선수’와 ‘페어플레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해라고 평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슬로건 그대로 즐기면서 축구를 했습니다. 주말리그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축구선수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욕은 절대로 하지 말고, 동료가 넘어지면 꼭 일으켜 주라고 가르쳤어요.”

김재성 감독

김재성 감독의 내년 바람은 더 많은 선수들이 어정초에 와서 축구를 배우는 것. 그리고 주장 장건우는 내년엔 감독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는 선수로 커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내년에도 주마리트를 지키며 팀 흥을 두 사람의 모습을 기대해보자. /글·사진 김단 기자



결승골을 넣은 이병주



포항중원의역 이병주

‘2013 하나은행 FA CUP’ SEMI-FINAL 원정팀이 모두 이겼다! 포항-전북 최강자 결승전

실력 앞에 장사 없다! 포항-전북, 원정 불리함 딛고 각각 4-2, 3-1 완승 포항의 기술이나, 전북의 힘이냐... 10월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망의 결승전



결국 반란은 없었다.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가 각각 제주유나이티드와 부산아이파크를 4-2, 3-1로 누르고 '2013 하나은행 FA CUP' 결승전에 올랐다. 두 팀은 10월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망의 결승전을 치른다.

일등한 실력 차로 거둔 승리였다. 포항과 전북은 각각 원정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막강한 전력을 가동하며 순쉬운 승리를 거뒀다. 특히 포항은 제주에 내린 폭우 속에서도 제 기량을 발휘하며 우승컵을 향해 한 걸음 전진했다.

포항은 9월 1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4강전에서

제주와 난타전을 벌였지만 결국 4-2로 승리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제주의 마라냥에 불의의 일격을 맞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8분 뒤 고우열이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 3분에는 노병준이 추가골을 성공시켜 역전에 성공했다.

FA컵에 사활을 걸었던 제주는 모든 힘을 짜내며 반격에 나섰고, 후반 13분 페드로가 2-2 동점골까지 넣었다. 그러나 더 이상 힘이 없었다. 포항은 후반 15분 박성호가 결승골을 넣으며 제주의 기를 꺾었고, 후반 34분에는 조찬호가 추가골까지 넣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없이도 '현대 오일뱅크 K리그 2013'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은 FA컵 마저 결승전에 오르며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경기를 마친 황선홍 감독은 “어느 팀이 올라와도 우리가 우승한다”며 포효했다.

이튿날 열린 부산과 전북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다. 원정팀 전북이 전반 12분 정형의 벼락 슈팅으로 앞서 갔지만 홈팀 부산도 곧바로 동점골을 넣어 1-1을 만들었다. 선 굵은 축구로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인 두 팀은 중원에서 일진일퇴하며 팽팽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전북에는 최강희 감독이 있었다. 최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부상에서 회복한 이규로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고, 이규로는 투입된 지 12분 만에 오른발 결승골을 넣으며 최 감독의 믿음에 화답했다. 기세를 탄 전북은 파상공세를 펼쳤고, 홈팀 부산은 자기 진영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결국 후반 46분 전북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3-1 완승을 거뒀다.

전북은 FA컵 결승에 진출함과 동시에 홈경기 개최권까지 따내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 4강전을 앞두고 시행된 '원스타(One Star) 시스템' 때문. '원스타 시스템' 조 추첨에서 3번을 뽑은 전북은 4번을 뽑은 포항보다 숫자가 적어 결승전을 홈에서 개최하게 됐다.

최강희 감독은 “홈에서 하는 만큼 한 달 동안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우승하겠다”며 전날 우승을 장담한 황선홍 감독에게 맞불을 놓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 팀이 맞붙는 '2013 하나은행 FA CUP' 결승전. 우승을 호언장담한 두 팀의 자존심 대결에 결승전의 열기는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글 손춘근 기자·사진 윤석근 기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오프사이드 선수가 골라인을 넘은 공을 터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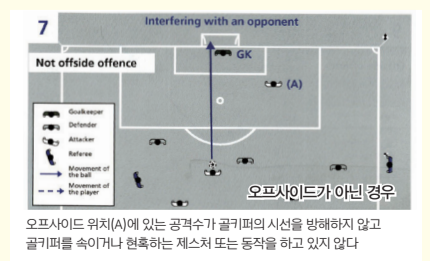
작년 봄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에서는 오프사이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란이 있었다. 포항과 부산이 2-2로 팽팽히 맞선 상황이었을 때, 남은 시간은 2분이었었다. 그때 포항의 코너킥이 박성호의 머리에 맞고 골대 안으로 날아갔고, 공이 골라인을 지나는 순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동료 선수 지쿠가 발을 갖다 댔다.

이 상황에서 심판진은 처음에 골로 인정했다가 오프사이드로 번복했다. 포항은 강하게 아쉬워했고, 부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판정에는 문제가 없다. 규정에 따르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 선수를 방해할 때, 또 그 위치에서 이득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프사이드로 판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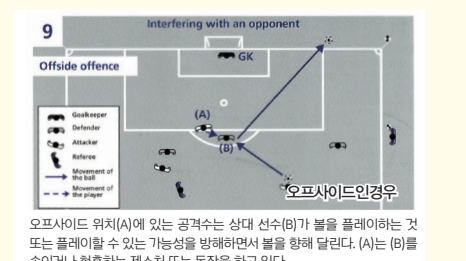
그러나 지쿠의 경우는 달랐다. 일단 지쿠는 플레이에 관여하기 위해 골문으로 쇄도했고, 박성호가 헤딩한 볼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근접 위치에 있었다. 이때 지쿠가 볼 터치를 한 것이 골라인을 넘은 이후라서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볼의 터치 여부는 전혀 상관 없다. 볼의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진 위치였다면 오프사이드가 아니지만, 바로 볼이 흐르는 상황에서 볼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만약 상황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볼을 향해 골문으로 쇄도한 것이다.



오프사이드가 아닌 경우

규칙에는 볼이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내에서 움직여야 플레이에 관여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근접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그 선수가 플레이에 관여했느냐는 심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 경기의 심판은 지쿠가 볼과 근접한 곳에 있으면서 플레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KFA 심판팀



오프사이드인 경우



우리에게는 두 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우정을 쌓아가는 교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대표의 꿈을 꾸며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서는 동료들이 학우이며 감독님은 담임 선생님입니다. 때로는 감독님의 불호령에 운동장은 살얼음판이 되지만, 그 불호령조차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독님을 사랑합니다. (사진은 지난 14일 도병중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 이성일 감독이 직접 준비한 플래카드) / 이보미 기자

사랑한다 영원한 나의 제자들이야



가슴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슬퍼요 (기장초 vs. 낙동초) / 하서영 기자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는 박지성처럼! 윤광호 감독에게 안기는 상리초의 양현준 (상리초 vs. 장산초) / 하서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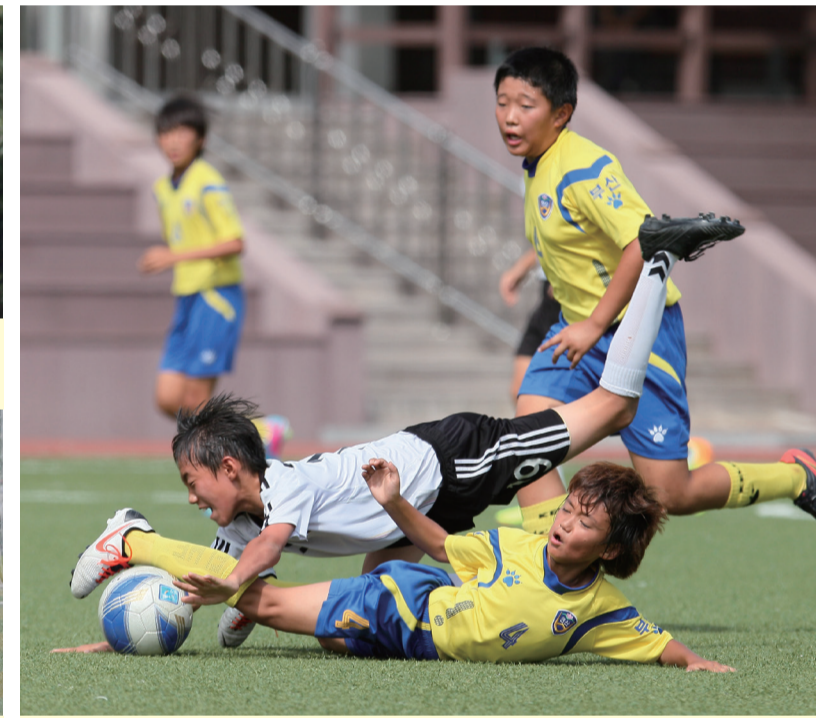
아무리 매달려도 나는 간다! 힘이 느껴지는 송호대 박승우의 돌파 / 서혜민 기자



어때? 나 호나우지뉴 닮았니? 신평중 박윤수의 골 세리머니 (신평중 vs. 대성중) / 박성준 기자



저의 신성한 유니폼입니다~ 아무도 만지지 마세요 / 이보미 기자



이것은 럭비가 아니야~ (연산초 vs. 당감초) / 하서영 기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공중에서의 우아한 발리슛 (청주직지FC vs. 포천시민축구단) / 서혜민 기자



으~~ 분하다. 주먹을 불끈 쥐고 땅을 치는 예산중 이상현 (예산중 vs. 신명중) / 박성준 기자



수비벽 사이를 교묘히 지나고 있는 청주 김형필의 프리킥 (청주직지FC vs. 포천시민축구단) / 서혜민 기자



아빠! 몸은 날렸지만 공은 이미 지난 뒤 (신평중 vs. 대성중) / 박성준 기자



난 넘어져 있는데, 너는 왜... (제천동중 vs. 운호중) / 박성준 기자

'2013 유·청소년 클럽축구 Incheon Airport리그' '성적보다는 즐거운 축구'... 박지성 축구클럽의 목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박지성 축구클럽이라고 해서 다른 클럽팀에 비해 축구 장비나 코치진 등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시합이었는데 넓은 그라운드 위에서 뛰어다니기 바빴고 그 뒤를 따르는 코치는 혼자 축구공 가방과 작전판을 들고 힘겹게 걸어왔다. 다른 팀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11월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 2구장에서 열린 '2013 유·청소년 클럽축구 Incheon Airport리그' 경기수원(U-12)리그에 참가 중인 박지성 축구클럽 U-12팀. 올 시즌 권역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팀의 원동력은 바로 즐거움이다. 방진규 코치는 박지성 축구클럽의 모토가 즐거움을 바탕으로 축구를 가르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어린 친구들에게 기본기와 개인 전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간을 만들어 내는 움직임도 가르치고 있죠." 이하 방진규 코치

어디서 많이 들던 얘기다. '공간 창출은 박지성 축구센터 박지성(PSV 아인트호벤) 대표가 세계적인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능력 아니었던가. 이런 박지성 대표의 능력을 아이들이 클럽축구

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다. 방진규 코치는 박지성 축구클럽에 대한 편견을 또 하나 깨주었다. '박지성' 축구클럽이라면 참가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할 부담감이 있을 법한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게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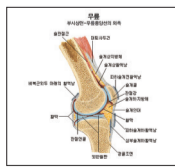
"얼마 전 대회에 박지성 축구클럽 U-10팀과 U-12팀이 참가했는데 몇 라운드도 치르지 못하고 그대로 탈락했습니다. 지금 이 리그도 그렇죠. 현재 권역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우승을 해야 한다'는 목표는 없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기존 우리 학원 스포츠의 시각이다. 그동안 어린 축구선수들은 각종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것만이 최고라고 배웠다. 하지만 박지성 축구클럽은 성적 제일주의 등의 기존 상식을 하나하나 깨고 있었다.

유·청소년 클럽리그가 한국 축구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즐기는 자가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있듯 아이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성 축구클럽에서 즐겁게 축구를 하는 아이들 중 '제2의 박지성' 탄생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글·사진 김남현 기자

무릎 손상 후의 재활 ③

연골 손상의 종류와 치료



연골이 떨어져 나가거나 골-연골 골절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축구선수는 신체 접촉이 많아 연골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진단을 못 할 경우 손상된 관절 면의 연골 손상 부위가 급격하게

커지거나 2차적으로 관절염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연골이 찢어지지 않은 경우나 연골의 경도가 물러지는 연골연화증의 경우 적극적인 대퇴부 근력 강화 운동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관절 면의 연골이 떨어져 나가거나 골-연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이에 대한 정복 및 고정을 시행한다. 연골 유사 조직으로 유도하는 미세천공술, 자가골연골 이식술, 자가 유래 연골세포 이식술 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연골판 손상도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연골판은 관절 내에서 하중을 전달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관절의 안정성 및 윤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다. 특히 연골판이 제 기

능을 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다. 문제는 손상된 연골판은 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손상된 연골판이 자연 치유됐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사례다. 그러나 과거엔 연골판 손상이 있는 경우 수술 방법이 연골판의 부분 절제나 다듬는 시술 등으로 제한되었던 것에 반해 현재는 봉합술의 발달로 연골판을 가능한 한 많이 보전하면서 추후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릎관절 주위의 근육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개 부분 파열인 경우

가 많다. 근육은 자체에 혈액 공급이 풍부한 조직이어서 손상되었을 때 잘 붓고 피가 고이기 쉽다. 이때 상당한 통증이 따르고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40% 미만의 파열인 경우 2주간의 초기 안정 기간을 지키며 파열 근육의 유착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와 스트레칭 등 재활 훈련을 하도록 한다. 통증이 감소하였다고 느낄 경우 운동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잘못으로 통증을 악화, 재발 등의 원인이 된다. 40% 미만의 부분 파열이라 할지라도 복귀에는 4~6주가 소요된다. /KFA 의무팀

ON THE STAND

경남 권역의 반상석 간호사 "서로 안전한 경기 했으면"



2011년부터 3년간 경남 권역의 초중고리그와 함께하며 점을 쌓은 반상석 간호사. 반 간호사는 정규 시즌의 종료를 못내 아쉬워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시즌도 별 탈 없이 무난하게 보낸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전국에서 많은 경기가 열리는 만큼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제가 참석한 경기에서 큰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감사한 일이지요. 다른 경기장에서 발생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면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하 반상석 간호사

그라운드에서의 사고는 갑작스레 찾아오곤 한다. 이에 대비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배치되고 심판진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다른 관계자나 관중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관중석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왕중왕전을 남겨두고 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까? 리그보다 훨씬 격렬할 토너먼트를 떠올리며 반상석 간호사는 걱정이 앞섰다.

"제일 중요한 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예요. 왕중왕전에서의 승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 합니다. 상대 선수를 배려하는 게 결국 자신도 보호하는 길이에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이 서로 안전하게 경기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10년 중동리구 왕중왕전에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상대 선수와 충돌한 모 선수의 허가 말려들어 경련을 일으켰다. 다행히 심판진의 응급처치 덕분에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선수들도 낙박이라든지 부상을 최소화하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치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빠른 판단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회복이 빨라지거든요."

"2011년부터 바뀐 C-A-B 심폐소생술(가슴압박→기도개방→인공 호흡)과 함께 부목, 얼음찜질 같은 응급처치법은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최소한 경기 중 쓰러진 선수에 대한 관심과 빠른 확인만 이뤄져도 심각한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계일 기자

환인우의 재활포인트

한가위 특집 'U리그의 특별한 인연들' ①

U리그에는 치열한 축구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들도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KFA리그>가 쌍둥이, 부자지간, 7년 만에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등 U리그의 특별한 인연들을 소개합니다.



우석대 쌍둥이 조현-조운 "우리는 프로까지 함께 쪽~"



"조현이랑 조운이요? 이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뛰어난 자들이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라고 하면 진정 이 두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요. 통하는 점이 많아서인지 이들의 호흡은 환상적이지요." 이경춘 감독

우석대에는 똑같이 생긴 선수 둘이 있다. 이 때문에 상대 팀이 놀라는 일은 다반사다. 예를 들면 '어? 재 아까 분명 나를 수비했었는데 언제 또 내 앞에 와 있지?' 뭐 이런 식이다.

"중학교 때는 수업을 바꿔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똑같이 생겼나요?" 조현

조현, 조운 형제는 우석대의 유명인사다. 쌍둥이가 한 학교에서 축구를 하기로 쉽지 않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한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한 이후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초-중-고-대학을 함께 다녔다. 같은 길을 걸어온 셈이다.

"어렸을 때부터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도 항상 같이 아

팠어요. 늘 함께하다 보니 이제는 없으면 허전하고 어색하죠. 축구 경기 도중 다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현

"호흡은 다른 누구보다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구할 때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던 서로 가장 편하다 보니 더욱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조운

서로 호흡을 맞추게 된 지 20년째다. 안 맞을 수가 없다. 테어나 지금까지 같은 학교, 같은 팀에 있었으니 당연하다. 형제는 서로에게 최고의 동반자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큰 라이벌이 되기도 한다.

"스타일까지 비슷해서인지 제 최고의 파트너는 동생인 것 같아요. 쓰는 발이 다르다는 걸 제외하면 스피드와 민첩성은 비슷하거든요. 비교도 많이 당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큰 라이벌일 수밖에 없어요." 조운

조현, 조운 쌍둥이 형제는 프로 무대에서 함께 뛰는 모습을 그린다. 한 집에서 두 명을 운동시킨, 결코 쉽지 않은 길을 도와준 부모님에게 성공해서 두 배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지요. 같이 프로에 진출해서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어요. 함께하면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달려보려 합니다." 조현 /김진희 기자

남부대 쌍둥이 김재형-김재현 "함께 목표를 이루고 싶어요"



남부대의 쌍둥이 김재형, 김재현 형제는 주변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다. 경기 날 남부대를 찾는 관중들은 닮은 듯 다른 남부대 쌍둥이를 한 번쯤 찾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축구 스타일은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축구 스타일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형의 빠른 순간 동작과 스피드를 많이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김재현

"축구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매번 골똥하고 깔끔한 동생을 많이 닮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경기 도중에도 저보다 더 세밀한 동생을 보면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10년 이상 함께 축구를 해온 쌍둥이 형제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존재로 성장했다. 형은 동생에게 든직한 힘이요, 동생에게 형은 멘토와도 같은 존재다.

"축구를 하다가 힘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가끔 슬럼프에 빠져 생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면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들도 없는 쌍둥이 형입니다. 형이 경기 도중에 다쳐서 제 옆에 없을 때면 그 소중함을 더 느껴요. 제게 있어 형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김재현

형인 김재형은 어릴 적부터 키워온 둘만의 꿈이 있다고 했다.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우선시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쌍둥이답게 그들은 꿈도, 목표도 하나이며 그 과정 역시 함께 이뤄나가고 싶다고 했다.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동생과 함께 졸업 꿈꿔온 것이 있었어요. 축구를 계속하는 한 프로 무대에 진출해서 같은 그라운드에서 뛰자는 것이예요. 더 나아가 유럽

진출이라는 최고의 꿈을 이뤄내는 것 역시 동생과 해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오는 데도 동생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돼요. 마지막까지 목표에 함께 도달하고 싶어요." 김재형

함께 꿈꿔온 일들을 함께 이뤄내고 싶다는 김재형-김재현 형제. 단단한 우애를 가진 'K리그 쌍둥이'로 유명세를 타게 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글·사진 김진희 기자

한가위 특집 'U리그의 특별한 인연들' ②



스승과 제자, 7년 만에 목포에서 재회하다

축구를 처음 시작한다며 달려오던 꼬마들이 어른이 되어 스승과 재회했다.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인연을 이어오던 사제지간이 대학에서 다시 이어졌다. 스승만을 믿고 멀리 목포까지 날아온 제자들은 오늘도 스승과 함께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꿈을 꾸다.

“얼마 전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함께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어요.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시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 녀석들을 보면 유난히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김주원 감독

7년 전 주문진초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김주원 감독과 박재형-이민규-최우빈, 7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선수들은 여전히 김주원 감독 밑에서 함께하고 있다. 목포과학대 창단과 함께 감독의 부임 소식을 접한 제자들이 하나둘씩 목포로 모여든 것이다.

“목포라는 먼 곳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감독님께서서는 진로 결정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붙잡아주셨어요. 믿을 하나로 이곳까지 왔어요.” 이민규

세월의 무게에서 알 수 있듯 김주원 감독과 선수들은 누구보다 가깝다. 이제는 서로 아버지와 아들같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다. 부모님보다 선수들을 더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김주원 감독의 책임감은 투철하다. 내 선수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기로 쉽지는 않아요. 부담감이



왼쪽부터 목포과학대 박재형-박주원감독-이민규-최우빈 / 이세라 기자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제자는 영원히 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내가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김주원 감독

“저희가 이런 평가를 내릴 위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감히 한마디 하자면, 감독님 역시 우리와 함께 성장하신 것 같아요. 현재 감독님은 너무나 큰 열정으로 저희를 지도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운동장을 뛰며 가르쳐주시죠.

사실 다른 대학을 보면 운동장에 잘 나오지 않는 감독님도 많거든요. 우리 감독님은 늘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최우빈

아빠와 아들보다 더 가까워진 감독과 선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냐는 물음에 “우리 감독님 같은 지도자”라고 답하는 이들이 있기에 목포과학대는 오늘도 즐거움이 넘친다.

/김진희 기자

송호대 하성준 감독의 ‘아들’을 향한 진심



티켓테크도 대표팀 감독 송호대 하성준 감독과 하성준 / 서혜민 기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대견스러움이다. 그러나 내색할 수는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기 전에 팀의 선수와 감독이기 때문이다. **“어렵죠. 감독과 선수의 관계처럼 단단한 분위기는 집에**

가도 이어져요. 저는 집에 가서도 아들을 훈련시켜요. 사실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는 편이라 본인도 힘들어해요.”

“그래도 방법이 있나요? 우리 팀 선수인데요. 내 아들이라는 관념을 깨버리고 실력으로만 선수단을 운영해야죠. 그런 원칙은 제 아들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되요. 힘들겠지만 아들이 2년간 잘해주고 많이 배워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하성준 감독

“아버지랑 한 팀에 있는 건 사실 많이 불편해요. 안 불편하다면 거짓말이죠. 특별요? 당연히 없어요. 저도 다른 선수들 이랑 같은 선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정훈 선수

아버지는 아들이 축구를 마음 깊이 즐기길 원했다. 학교를 떠나 어느 팀으로 가더라도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에서 단단해져야 한다. 아버지라고 살갑게 못 대해주는 이유다.

“정훈이가 다른 애들보다 운동 시작이 많이 늦은 편이죠. 객관적으로 실력이 월등한 편은 아니지만 본인이 축구를 무

척 좋아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죠. 저와 같은 팀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혼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성준 감독

“우리 팀은 외박이 많이 없어요. 외박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한 달에 한번 꼴이예요.” 하정훈 선수

아들의 투정을 듣는 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린다.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가슴 한쪽에 미안함이 올라온다.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신경 써줄 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은 1년 내내 경기를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해요. 항상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외박을 자주 안 줍니다. 아마 우리 아들은 자한테 혼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미안하죠.”

“아들이 축구선수가 안 되더라도 무엇이든 단체 안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축구를 많이 좋아하니 노력해서 인정받길 원해요.” 하성준 감독

/안희희 기자

감독추천! 이 선수를 주목하라 ⑫ U리그 정상급 MF 연세대 김도혁, 유럽을 꿈꾸다

선수의 기량과 발전 가능성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감독이다. 감독이 보는 눈은 정확하다. 그래서 <KFA리그>가 준비했다. U리그를 뜨겁게 달굴 감독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감독 추천! 이 선수를 주목하라.’



연세대 김도혁은 U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평가받는다

“도혁이와 함께한 지 벌써 4년이네요. 운동장 안과 밖에서 늘 성실한 모습으로 동료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미드필더로서 기본기가 탄탄해 공수 연결 고리를 잘 해내요. 프로 무대에 가도 대성할 선수라고 자신합니다.”

연세대 신재홍 감독

김도혁(22)은 이미 U리그 최고 선수로 검증받았다. 연세대 1학년 시절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며 2010년 챔피언십 우승을 경험했고, 지난해엔 연세대의 챔피언십 두 번째 우승을 이끌며 MVP까지 수상했다.

“지난 4년 중 1학년 때 경험한 챔피언십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축구 인생 첫 우승이었거든요. 당시 4학년 선배들의 의리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고 우승은 이 정도의 팀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이하 김도혁

김도혁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인 박지성(PSV 아인트호벤)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작은 체구와 영리한 플레이 스타일, 폭넓은 활동량 등이 비슷하다. 게다가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번호인 13번까지 똑같다. 그런 김도혁은 올해 박지성 자선 축구에 초대받기도 했다.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 드림컵’에 대학선수로서 유일하게 참가했다.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평소 우상이었던 선수들과 함께 뛰어 행복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먼저 다가오셔서 놀라기도 했어요. 축구를 잘하는 것 이전에 인성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안영학(전 북한 국가대표) 선수와 친해졌어요. 같은 포지션이라서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배웠고요. 이제는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요. 안영학 선수는 독일에 진출하고



유립 무대 세 곳 이상에서 축구 경연하는 데 목표인 김도혁(오른쪽)

저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해서 유럽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웃음)”

어느덧 연세대 4학년으로 학교 그라운드에서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김도혁은 졸업과 동시에 프로 무대로 향할 예정이다. 대학 최고로 인정받은 만큼 스스로와 팬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 김도혁은 이별 때일수록 기본기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저는 프로에 가면 탄탄한 기본기로 승부하고 싶어요. 기

분기가 안정되면 어느 팀에 가든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K리그를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는 어린 후배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잉글랜드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무대 세 곳 이상에서 다양하게 축구를 경험하고 싶어요.”

/글 김동현 기자 · 사진 서혜민 기자

‘2013 카페베네 U리그’ 15라운드 호남대 vs 남부대... 호남 1권역 선두 향방은?



호남대와 서열한 선두 격을 중인 남부대(백반) // 이세라 기자

호남 1권역의 선두 싸움이 오리무중이다. 호남대와 남부대의 막판 혈투가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남부대는 13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난적’ 전주대와와의 ‘2013 카페베네 U리그’ 15라운드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전반 23분 현동근의 선제골로 앞서나간 남부대는 전반 추가시

간에 전주대 박선홍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29분 이재원의 결승골과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이민규의 썩기골을 묶어 3-1 승리를 완성했다.

승리한 남부대는 승점 33점을 획득하며 전주대(승점 30점)를 제치고 단독 2위에 올랐다. 1위 호남대와 승점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약간 뒤진다. 호남대는 초당대와 경기에서 4-0 완승을 하며 간신히 1위를 지켰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두 팀의 권역 1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 1권역의 고려대는 위기에 몰렸다. 고려대는 제주국 제대와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25점이 다. 그러나 중앙대가 광운대 원정에서 이인식의 두 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7점을 획득했다. 이전까지 승점 동률로 나란히 4, 5위를 유지했던 중앙대와 고려대였지만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승점이 벌어진 4, 5위로 바뀌었다. 고려대로서는 자칫하다간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몰

린 셈이다.

중부 2권역 선두인 연세대는 송호대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국대(승점 29)와의 승점 차는 아직 여유가 있다. 중부 3권역의 건국대는 1위를 굳혀가고 있다. 건국대는 충북대와 경기에서 조성빈이 혼자 네 골을 터뜨리는 원맨쇼를 펼치며 4-1 대승을 거뒀다. 승점 36점을 확보한 건국대는 2위 관동대(승점 31)와의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렸다.

영남 1권역의 영남대는 영동대를 7-2로 격파하며 승점 37점으로 권역 1위를 유지했다. 영남 2권역의 동의대는 대구에술대를 4-0으로 눌러 승점 38점을 확보하며 무패행진을 내달렸다. 12승 2무다. 2위인 울산대는 경주대를 6-0으로 대파하고 승점 33점으로 3위인 인제대(승점 24점)와의 승점 차를 9점으로 유지했다.

/안희희 기자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26라운드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 확정... 본격 우승 경쟁 돌입



포천전 우승부르며 6강 진출한 송주/이세라 기자



순천의 대포포 진출이 확정된 경주/이세라 기자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모두 확정됐다. 이미 포천시민축구단이 통합 1위로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 지은 가운데 플레이오프에 진입한 다른 팀들의 운과도 모두 드러났다.

A조 1~3위는 포천시민축구단, 이천시민축구단, 청주직지FC다. 포천은 승점 64점으로 독보적인 통합 1위를 기록했다. 이천(승점 53점)과도 무려 승점 11점 차다. 그야말로 적수가 없다.

이천은 끈질긴 레이스 끝에 준결승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얻었다. 16승 5무 3패다. 막판까지 1위를 노렸지만 어의치 않았다. 하지만 통합 2위는 확보했다. 3위인 청주직지FC(승점 43점)와도 여유로운 차다.

김포시민축구단(A조 4위, 승점 39점)과 치열한 3위 다툼

을 펼쳤던 청주는 포천과의 홈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획득하고 김포가 전남 영광FC에 패배하면서 극적으로 웃었다. 리그 최강을 상대로 얻어낸 승점 1점이 결국 이들을 6강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다.

B조는 더 치열하다. 일단 1위는 화성FC다. 화성은 경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승점 50점을 확보했다. 이천에 이은 통합 3위다. B조 2위는 파주시민축구단으로 승점 42점이다. 1위와 8점 차다. 통합 순위는 일단 두고 봐야 한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28일)에서 이천이 지고 화성이 이길 경우 골득실을 따질 수도 있다.

B조 3위인 경주시민축구단은 청주와 마찬가지로 극적으로 웃는 데 성공했다. 경주는 화성에 지면서 승점 38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춘천시민축구단이 파주에 패하면서

경주가 극적으로 희생했다. 두 팀의 승점은 38점으로 동률이지만 춘천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휴식하면서 경주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다. 두 팀의 골득실 차는 +17(경주 +19, 춘천 +2)이다.

오는 28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챌린저스리그는 6강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6강 플레이오프는 통합 순위 3위와 6위, 4위와 5위 간의 경기로 진행되며 승자는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6강 플레이오프와 4강 플레이오프의 홈 경기장은 리그 통합 성적 상위팀에서 진행된다.

준결승 플레이오프는 리그 통합 성적 2위 팀과 4강 플레이오프 승자 간의 경기로 열리며 승자는 챔피언결정전에서 포천과 맞대결을 펼친다. 역시 홈 개최권은 리그 통합 성적 상위팀이 가져간다.

/ 안기희 기자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26라운드 경기 결과 (9월 14일 토요일)

청주직지FC 0-0 포천시민축구단
전남영광FC 2-1 김포시민축구단
전주시민축구단 3-1 광주광산FC
천안FC 3-2 고양시민축구단
춘천시민축구단 1-2 파주시민축구단
경주시민축구단 1-2 화성FC
서울유나이티드 10-0 서울FC마르티스
중랑코러스무스탕 4-4 아산유나이티드

챌린저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팀

포천시민축구단(챔피언결정전), 이천시민축구단(준결승 플레이오프 직행), 화성FC, 청주직지FC, 파주시민축구단, 경주시민축구단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플레이오프 일정 미정

여기는 운동장

경주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가 열린 경주시민운동장에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불현듯 벤치 의자를 바꿔 달라는 의견에 화성 구단 측에서 하프타임 도중 경주와 화성의 벤치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주의 배려 덕에 화성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기쁨까지 얻었습니다. /이세라 기자

6강 PO 진출이 걸린 청주의 경기를 하느라 도운 걸까요? 세차게 내리던 비가 경기 두 시간 전부터 멈췄고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두 팀도 수준 높고 재미있는 경기력으로 보답했습니다. 날씨와 경기 모두 '비 온 뒤 맑음'이었습니다. /김동현 기자

송호대와 연세대의 경기가 열린 송호대운동장. 경기kick오프 시간인 3시가 되어서야 휘슬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구급차가 오지 않았던 것. 구급차는 결국 예정시간보다 20분 늦게 도착했고 경기도 그만큼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오세요! /안기희 기자

'10-0 대승' 서유 김창겸 감독 "공격 축구 기대해도 좋아"

서울유나이티드의 김창겸 감독이 오랜만에 거둔 대승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창겸 감독은 14일 노원마들구장에서 열린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서울FC마르티스와의 홈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10-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를 거둔 서울유나이티드는 10승 3무 11패로 8조 6위를 유지했다.

오랜만에 거둔 대승인 만큼 김 감독의 얼굴에도 경기에 대한 만족감이 묻어 나왔다. 사실 김 감독은 내셔널리그 수원시청 감독 시절부터 공격 중심의 축구를 중시하던 감독이다. 서울유나이티드에서도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화끈한 공격 축구를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은 우리가 공격 축구를 할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면 다른 한 부분은 구멍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후반기에 좋은 공격수가 많이 들어와 조금씩 공격 중심의 축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FC마르티스전에서는 여러 선수가 골맛을 봤서 내년에 더욱 기대됩니다." 이하 서울유나이티드 김창겸 감독

서울유나이티드는 서울 라이벌인 서울FC마르티스와의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최윤혁이 선제골을 성공했다. 여기에 전반에만 4골을 추가해 5-0으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도 서울유나이티드의 공격은 계속됐다. 후반 안간찬, 임성재, 이동현, 이창곤이 골 퍼레이드



박성준 기자

를 펼쳐 10-0이라는 기록적인 스코어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서울유나이티드는 비록 약팀과의 경기였지만 이날 승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팀 창단 최다 연승 타이(4연승)와 함께 팀 창단 사상 최다 골 차이(10골 차) 승리라는 타이틀까지 경신한 것이다. 만약 다음 라운드인 중랑코러스무스탕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시에는 팀 창단 최다 연승 기록까지 갈아치울 수 있다.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팀 창단 최다 연승이라고 들었어요. 욕심이 나요. 최다 연승도 세우고 싶지만 이겨서 올 시즌 마무리를 잘 짓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울유나이티드의 공격 중심의 축구를 기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라 기자

김태룡 해설위원, 챌린저스리그를 향한 애정의 조언

'챌린저스리그 스타 출신' 김태룡, "부천 시절은 최고의 순간" 성적과 인기 잡은 포천시민축구단, "부럽고 칭찬받아 마땅하죠" "후배들이 준비된 자신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맞출 수 있기를"

"후배들이 축구를 사랑하면 좋겠어요. 실패와 좌절감도 느껴봤겠지만 반대로 우리를 키워준 것 역시 축구니까요. 수많은 후배가 축구를 그만뒀도 2~3년 뒤면 다시 찾아오. 가슴 속 축구를 향한 '아수'는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SBS ESPN 김태룡 해설위원은 챌린저스리그의 간판스타였다. 프랑스 파리생제르맹(PSG) 유스팀 출신으로 고려대-전남드래곤즈를 거친 그는 탁월한 기량과 탐을 향한 애정으로 부천FC가 챌린저스리그에 속했던 시절 팀의 상장으로 통했다. 챌린저스리그 역대 최고의 이슈로 통하는 라이벌 부천-서유이적 스토리의 주인공도 김태룡 해설위원이었다.

"부천 시절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전남에서의 실패로 선수로서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부천에 합류하여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감을 찾았어요. 프로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팬들의 사랑도 정말 감사했고요. 당시 부천 멤버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 라이벌 서유로 이적했던 일도

업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당시 코칭스태프와 의견 차이로 부천에서 경기를 출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저는 그라운드에서는 게 간절했어요. 다음 해에 은퇴하고 행정을 준비하려던 저는 프로팀 이적이 아닌 서유를 백할 수밖에 없었죠. 부천 팬 모두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요즘엔 연락하는 분도 꽤 많답니다."

김태룡 해설위원은 선수를 은퇴한 요즘도 챌린저스리그를 챙겨본다. 방송해설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선수로서 마지막 도전을 하는 후배들을 외면할 수 없다. 챌린저스리그의 눈부신 성장도 호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부천 시절 챌린저스리그 최초 FA CUP 32강 본선 진출을 하지 못한 것과 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포천은 두 가지 다 해냈잖아요. 꾸준히 발전하여 최근 독보적인 강팀이 된 것도 칭찬받아 마땅하구요."

"각 구단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선수들의 등 번호 위에 이름도 함께 새겨 주면 좋겠어요. 프로는 규정으로 정해진 부



김태룡 해설위원은 여전히 챌린저스리그에 애정이 많았다. /이세라 기자



김태룡 해설위원의 부천 선수 시절

분이지만 챌린저스리그는 규정은 아니더라도,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등에 새겼을 때 느끼는 자부심과 책임감은 정말 막중해요. 후배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사회에 나와서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김동현 기자

전북매일FC, 전주시민축구단으로 이름 바꾸고 새 출발



챌린저스리그 전북매일FC가 전주시민축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전북매일FC는 지난달 9일 전주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하고 팀명을 전주시민축구단으로 변경했다. 기존 전주대가 운영하던 방식을 탈피해 정식으로 시민축구단이 된 것이다. 전북 지역 유일의 시민축구단이다.

전주시의 지원을 받게 된 전주시민축구단은 전주 시내 홈경기 홍보 및 전주월드컵보조구장으로의 홈구장 이전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게다가 전주시 슬로건과 심볼을 하나로 결합한 통합 브랜드를 엠블럼으로 채택해 유니폼에 새겨 넣을 계획이다.

2007년 '전주EM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챌린저스리그(당시 K3리그)에 참가한 전주시민축구단은 기회가 부족했던 젊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 주력했다. 전주대 축구학과와 연계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팀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2013 시즌을 앞두고 학교 기업인 EM의 경기 침체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평희 구단주의 영입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했다. 스폰서 변경에 따라 전반기에는 전북매일FC로 팀명을 변경했다.

이름을 바꾸고 팀 분위기도 상승세를 탔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전북매일FC였던 전반기 '2013 하나은행 FA CUP'에서 K리그 챌린저의 부천FC 1995를 꺾고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26라운드에서는 A조 5위이자 통합 9위를 기록하며 창단 이후 팀의 역대 최고 성적으로 날개를 달았다.

전주시민축구단의 주장 정대환은 "시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들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시즌 중반에 이름이 바뀌어서 당장 많은 부분에서 바뀐 모습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내년 시즌에는 전주시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팀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이번 시민축구단으로의 전환으로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축구 종목에서 전북 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

/ 글 김동현 기자·사진 서해민 기자

현역 복무 후 축구장으로 돌아오다! 화성 GK 정성운

대한민국 남자에게 군대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운동선수에게는 더욱 그렇다. 2년이란 시간을 운동이 아닌 군대에 투자한다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여기 군 제대 후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한 이가 있다. 화성FC 골키퍼 정성운이 그 주인공이다.

정성운은 191cm, 90kg의 다부진 체격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팀의 골문을 든든히 지켜냈다. 대학 시절에는 경희대를 U리그 초대 챔피언으로 이끌며 자신 또한 골키퍼상을 수상했다. 대내외적으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만큼 많은 이들은 정성운이 프로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거라고 예상했었다.

“나름 드래프트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웃음) 내셔널리그에 간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도 정말 쟁쟁한 선배들과 좋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비록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프로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는 매 경기 최선을 다했다. 시작도 좋았다. 내셔널리그 명문구단 울산현대미포조선에 입단해 14경기를 출전했다. 빛나는 주연보단 뒤에서 꾸준히 자신의 가꾸는 조연을 택했다.

그러나 군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정성운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상무, 경찰청 등 많은 곳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의 선택은 현역 입대였다. 현역 입대와 함께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상무나 경찰청 다 지원해봤어요. 그런데 벽이 참 높더라고요. 언제까지 군대를 미룰 수 없어 현역 입대를 결정했죠. 진짜 입대하는 날까지 생각이 많았어요. 사실 현역 제대하고 뛰는 선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군대에서도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정성운은 군대에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힘든 훈련 속에서도 웨이트트레이닝, 개인 훈련 등으로 현역 시절 못지않은 몸을 유지했다.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서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2년의 군 복무 후 테스트를 통해 당당히 화성FC에 입단했다.

“제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축구였어요. 테스트를 통해 화성FC에 입단했는데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분 좋더라고요.”

정성운은 지난달 31일 서울FC마르티스와의 원정경기



이세라기자

서 약 2년 만에 복귀 경기를 가졌다. 그는 이날 선발 출전해 팀의 무실점을 지켜내며 7-0 대승을 만들어냈다. 승리도 승리였지만 2년 만에 느낀 희열이 더 컸다.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온 만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축구에 대한 꿈이 전보다 더 간절하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이세라기자



공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

아이들을 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달콤한 말로 토닥여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공부는 공을 들이는 일입니다. 시간을 들이는 일입니다

요령껏 하는 공부는 힘껏 노력하는 공부를 이기지 못하고
부자든 가난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똑 같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공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일이지요

그래서 대교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듣기 좋은 말 대신
공부의 약속을 전합니다
너의 공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어김없는 약속을!



'2013 하나은행 FA CUP' 4강전

SEMI-FINALS 2013

· 9월 14일 (토)

제주유나이티드 2-4 포항스틸러스 (제주월드컵경기장)

득점 : 마라냥(전1'), 페드로(후13' 이상 제주) / 고무열(전9'), 노병준(후3'), 박성호(후17'), 조찬호(후35' 이상 포항)

· 9월 15일 (일)

부산아이파크 1-3 전북현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득점 : 이정호(전25' 부산) / 정혁(전10'), 이규로(후12'), 레오나르도(후45+3' 이상 전북)

국가대표팀 10월 국내 친선경기

· 10월 12일 (토)

대한민국 vs. 브라질 (20시, 서울월드컵경기장)

· 10월 15일 (화)

대한민국 vs. 말리 (20시, 천안종합운동장)



'2013 하나은행 FA CUP' 결승전

FINAL 2013

· 10월 19일 (토)

전북현대 vs. 포항스틸러스 (시간 미정, 전주월드컵경기장)

함께 만들어요

〈KFA리그〉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받습니다. KFA리그의 현안과 바람 등에 관련된 내용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검토한 후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낼 곳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대한축구협회 〈KFA리그〉 담당자 앞
E-MAIL kfaleague@kfa.or.kr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들의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연간 구독료는 30,000원이며 수익금은 KFA의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됩니다.

문의 02) 2002-0778